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아브람을 부르심**

창세기 1-11장은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해, 12-5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 서술한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공의의 통치를 나타내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규범이 된다.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제2의 고향인 하란은 우상숭배의 땅이었다(수 24: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다. 그것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다. 그를 부르신 때는 그가 하란에 거하였을 때인 것 같다. 성경 다른 곳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한다(창 15:7; 느 9:7).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에게 어떤 암시를 주셨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그를 본격적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경건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분리의 시작이었다. 데라는 분리를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했다. 이제, 아브람에게 분리된 삶, 성별된 삶이 필요했다. 나이 든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브람이 죄악된 전통과 풍습을 완전히 떠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그에게 새 기문의 시작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큰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한 땅을 주기를 원하셨다.

[2-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 . .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그는

아브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이 크게 되게 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복의 근원’이라는 원어(베라카)는 ‘복’이라는 뜻이다. 아브람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창세기 22:18에서와 이삭(창 26:4)과 야곱(창 28:14)에게서도 반복된다.

그것은 메시아 약속이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내려왔다. 메시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손이실 뿐 아니라, 또한 다윗의 지손으로 예언되었다(렘 23:5; 겔 34:23; 호 3:5).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은 메시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지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요 5:39).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의 내주(內住)하심을 얻는 것이다.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 세였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것이 순종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 명하실 때 떠났다. 그는 우상숭배의 삶을 청산하였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다. 롯이 아브람과 동행한 것을 보면, 그는 아브람의 영향으로 비교적 경건하였던

것 같다. 베드로후서 2:7-8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증거한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이었고 아마 그의 부친 테라가 죽기 전이었을 것이다. 창세기 11:26은 테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고 말하므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부친 테라는 145세이었을 것이다. 창세기 11:32에 테라가 205세까지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역사를 기술할 때 테라에 대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브람에 대해 쓰는 기술 방식 혹은 습관이였다.)

[5-6절]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는 표현은 그가 하란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던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는 정들었던 그의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목표는 분명하였고 그는 그 목표대로 그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위해 예정하시고 그에게 지시하신 땅이었다. 그 땅은 창세기를 쓴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땅이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장은 가나안 땅을 여러 번 언급한다. 5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1:31, “[테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람은 가나안 땅 중부,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상수리 나무’라는 원어(엘론)는 테레빈스(terebinth) 나무라고 한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창 9:22)의 자손이다. 그들은 후에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멸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창 15:16).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람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특별한 방식으로 종종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 구름이나 불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고, 또 자신의 음성으로나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셨다. 이때는 아마 그가 직접 나타나신 것 같다. 하나님의 이런 직접 나타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요 1:14; 14:9).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는 지구의 한 지역을 누구에게 주실 권한이 있으시다. 그는 온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인이시므로(시 24:1)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 출애굽기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신명기 10: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 ‘단’이라는 원어는 ‘짐승을 잡아죽인다’는 말에서 나왔다. 그것은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다.

[8-9절] 거기서 벨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벨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람은 그곳에서 벨엘 동편 산으로 옮겨 거처를 정하고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노아가 홍수가 그친 후에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과 같았다. 짐승 제사에는 하나님의 공화로 예비하실 속죄제물을 믿는 뜻이 있고 또 참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뜻도 있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삶, 곧 경건한 삶을 가리킨다. 그것은 셋의 아들 에노스의 삶이었고(창 4:26), 에녹의 삶이었고(창 5:22, 24), 또 노아의 삶이었다(창 6:9, 22).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충직한 말씀의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며 규범이다. 성경 외의 다

1) 모세는 후에 이스마엘의 죽음을 언급한 후 이삭에 대해 (창 25:17, 20), 또 이삭의 죽음을 언급한 후 야곱에 대해 서술하였다(창 35:28; 37:2).

른 계시를 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잘못이다. 성경 외의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 성경보다 하나님의 현재적 직접 계시에 무게를 두게 되고 그것은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는 길이다. 요한계시록 22: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누가복음 16:29, 31,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기를 힘쓰고 성경을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숭배의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부도덕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고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오늘날 약속의 땅은 세상에서는 교회이며 장차 들어갈 영광의 천국이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신의 죄성과 싸워 이겨야 하며 이것이 성화(聖化)의 과정이다. 이것이 구원 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생활을 힘써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을 힘썼다. 그것은 경건한 삶이며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 들어오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첫 번째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귀히 여기자.

주일오후설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레위기 23:23-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 . .

7월 1일 월삭은 나팔절이다. 이 날은 안식일이며 성회로 모였다. 이 날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오는 한 중대한 절기를 기억케 하는 뜻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 중대한 절기는 7월 10일 속죄일이다. 속죄일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대속

사역을 증거하는 절기이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속죄일이 중대한 날임을 암시하며 그 날을 엄숙히 준비시키는 절기이었다.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은 한 마디로 속죄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였다(고전 1:22-24).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속죄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26-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 . .

7월 10일은 속죄일(율 학킵푸림)이다. 이 날도 안식일이며 성회로 모였다. ‘월 안식일’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1:15에서는 ‘큰 안식일’이라고 번역되었다.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원어(인나)는 [‘금식함으로’] 자신을 낮춘다, 괴롭힌다는 뜻이라고 본다(BDB). 그것은 금식을 가리켰다. 속죄일은 금식일이었다. 이 날의 규례는 엄격하여 누구든지 이 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날에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낮추는 것은, 그 날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한 의미 심장한 날이다. 속죄는 성경의 핵심 진리이다(고전 1:23; 롬 3:23-24).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담당하심을 상징하고 예표한다. 단번 속죄는 구약성경이 예언하는 바이다. 다니엘 9:24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sevens 혹은 weeks)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永贖)되며 영원한 의(義)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고 예언하였었다. 스가랴 3:9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예언하였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밝히 증거한다. 히브리서에는 ‘단번에’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온다(7:27; 9:12, 26, 28; 10:10).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셨음을 증거한다.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

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10, 12, 14,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기억 하라고 교훈한다. 이것이 주께서 성찬식을 통해 의도하신 바이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

[33-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연중 3대 절기들 중 세 번째는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수장절(收藏節)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이다. 또 첫날(7월 15일)과 제8일(7월 22일)은 안식일이며 성회로 모여야 하였고 특히 제8일은 ‘거룩한 대회’라고 불렸다.

그 날은 연중 여섯 절기들 중에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에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가 모두 71마리, 숫양이 15마리, 1년된 숫양이 105마리이며, 속죄제로 드리는 숫염소가 모두 8마리이다(민 29:13-38).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이었다. 초막절 때에는 이미 곡식 추수는 끝났고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들을 수확하는 때이었다. 그것은 즐거운 절기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수고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들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복주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했다. 그것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며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뜻이 있었다. 40년의 광야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셨다. 그들은 40년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였다.

초막절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그것은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소득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건강도, 직장도,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여건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둘째로, 초막절은 이 세상의 삶이 광야 같은 나그넷길임을 알게 한다. 레위기 25: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역대상 29:15,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셋째로, 초막절은 우리가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보인다. 이 날은 우리가 천국 공간에 들어감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13:30,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공간에 넣으라 하리라.”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믿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자.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였다. 우리는 속죄 신앙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해 주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자.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자. 니팔절은 속죄일을 알리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막 16:15).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딤후 4:2).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막 16:16).

셋째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자. 세상은 광야 같은 나그넷길 세상이다(대상 29:15; 시 39:5-7). 고린도후서 4: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이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책안내] ● 김효성, **역대기 강해**, 제2판, 256쪽, 2,500원.

● 김효성, **열왕기 강해**, 제2판, 217쪽, 2,000원.

●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제2판, 233쪽, 2,000원.